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 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 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총무팀 안병오 주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푸른방송 숨은 일꾼 안병오 주임을 칭찬합니다. 주임님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가끔 오가며 본 주임님은 회사를 위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목요일 오전에 신문을 접을 때 본인 업무가 아니지만 신문 배송 관련 문제를 겪으셨는데 본인이 조금 더 일찍 가서 최대한 맞춰보고 관련자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를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수리들을 도맡아 하시다. 상처를 입으셔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느끼며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는 흥 반장님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덩고 추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주임님 덕분에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근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친분은 없지만 인사를 할 때마다 반갑게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멋진 안병오 주임님!! 응원합니다^^

<칭찬하는 사람:하지혜>



말하지 않아도 척척! 사랑스런 아들~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든든한 나의 멋쟁이 친구 같은 아들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괜찮은 듯... 미소만 짓고... 언제나 자신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속 깊은 아들을 칭찬합니다.

"엄마가 항상 고마워~ 사랑해! 엄마가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 우리 같이 힘내자! 파이팅!!

<칭찬하는 사람:서은주>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